

ACC 시네마테크 작품작 2편, 토론토영화제 초청

존 토레스·한옥희 감독 작품 예술영화 부문 ‘파장’ 섹션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아시아 문화원(ACI)이 운영하는 ACC시네마테크의 소장작품 2편이 세계 4대 영화제로 꼽히는 토론토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됐다.

ACC시네마테크는 지난해 개설 이후 아시아의 실험영화 및 미디어아트 연구, 수집, 상영, 제작지원, 유통에 꾸준히 힘써왔다.



한옥희 감독

올해는 그 성과로 시네마테크의 제작지원 프로그램인 ‘ACC시네마펀드’를 통해 완성된 필리핀 출신의 존 토레스(John Torres) 감독의 ‘우리는 여전히 눈을 감아야만 한다(We still have to close our eyes)’(2019)와 ACC 시네마테크 대표 수집 작품인 한국 한옥희 감독의 ‘2분 40초’(1975)가 토론토국제영화제 예술영화 부문 ‘파장(Wavelength)’ 섹션에 공식으로 초청받았다.

‘우리는 여전히 눈을 감아야만 한다’의 감독 존 토레스는 이미 12편의 단편영화와 5편의 장편영화를 제작한 필리핀의 대표 영화감독으로 베를린과 로테르담 등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그의 기존작품들이 이미 소개된 바 있다.

이번 토론토국제영화제에 소개되는 그의 작품은 필리핀 마닐라의 영화 세트장 및 촬영지 주변의 풍경들을 클라주한 실험영화로 2018 ACC시네마펀드 사전제작 지원을 통해 제작됐다.

함께 초청되는 ‘2분 40초’ 역시 주목할 만하다. 1970년대 한국 최초의 여성실험영화 집단인 카이두클럽 출신으로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다양한 영상 작업을 했던 한옥희 감독이 직접 연출하고 제작



존 토레스 감독의 ‘우리는 여전히 눈을 감아야만 한다’

한 ‘2분 40초’는 남북으로 분단된 한국의 이미지와 통일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실험적으로 담아냈다.

특히 이 작품은 1975년 제1회 한국청소년영화제 우수상을 수상하고 국내에 처음 공개된 이후 공개 상영된 적이 없으며, 이번 토론토국제영화제 초청을 통해 해외에서 처음으로 상영된다.

ACC 관계자는 “ACC 시네마테크는 앞으로도 기존 수집 작품들과 제작 지원된 작품들의 꾸준한 홍보와 유통에 앞장 서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새롭고 다양한 많은 영화작품을 세계에 알림으로써

상업영화 중심의 한국 및 아시아 영화자변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9 토론토국제영화제는 9월 5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된다. 올해는 ACC시네마테크가 출판한 2개 작품 외에도 올해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스페셜 프레젠테이션’ 부문에, 김승우 감독의 ‘나를 찾아줘’가 ‘디스커버리’ 부문에 초청됐다. 자세한 정보는 토론토국제영화제 홈페이지(www.tiff.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연수 기자

‘천의 향기로~’ 김월숙 섬유조형전

26일부터 가톨릭대 평생교육원 현갤러리

죽물과 감물로 염색한 천에 한지와 비즈를 접목시킨 김월숙 작가의 섬유조형전이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현 갤러리에서 오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 주제는 ‘천의 향기로 꽃피우다’로 작가는 자연에서 얻어지는 쪽, 감, 소목, 치자 등의 식물을 면, 실크천에 염색한 후 슬러시 기법을 응용한 꽃을 컨셉트로 작품을 선보인다.

염색 천을 여러 장 겹쳐 재봉한 후 지른 천을 뒤집어 작가 특유의 손바느질로 천에 향기를 불어넣어 꽃을 피웠다.

또한 잠뭇, 부채, 도자기 문양을 한 땀 한 땀 페마어 전통과 자연을 어우러지게 해 꽃처럼 아름다운 행복을 이야기 하고자 했다.

‘부채꽃’은 부채에 꽃을 피워 녹음 이 우거진 산에 올라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는 듯한 풍류를 표현했고, ‘8월의 꽃’은 무더위에 피어나는 이름 모를 꽃이 매달렸던 감성을 되살아나게 한 작품이다.

‘흘날리는 꽃’은 빛을 머금고 싱그러운 함께 따스한 기운을 전해주는 작품이다.

그 밖에 ‘바람꽃’, ‘시계꽃’, ‘하늘



바람꽃

꽃’, ‘꽃은 피고 지고’ 등 25점의 다양한 섬유 작품들이 선보인다.

2017년 양림 미술관에서 ‘오색찬란’이라는 주제로 첫 개인전을 연 후 이번 전시가 두 번째 개인전이다.

작가는 조선대 미술대학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했으며, 삼성전자 광주가전 매장 디스플레이어로 일했다. 현재 천연염색지도사, 한국공예가협회, 한국가톨릭미술협회, 광주가톨릭미술가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연수 기자

운림동 일대 버스정류장에 공공미술프로젝트 추진

무등현대미술관 윤윤덕·정강임·정승원 작가 참여

무등현대미술관(관장 정송규)은 2019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트 플랫폼 광주미술’을 진행하며, 동구 운림동 일대 버스정류장에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무등현대미술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트 플랫폼 광주미술’은 윤윤덕, 정강임, 정승원 3명의 작가가 입주해 여향의 도시 광주를 대표하는 운림동 미술관거리를 예술 플랫폼화 시켜 지역 발전과 동시에 예술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광주 동구청과 협력해 작가들의 미적 기량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요구를 취합해 공공 미술 작품을 제작할 계획이다.

운림동·성촌마을 버스 정류장 2곳에 설치될 공공미술 작품 ‘아트 정거장’은 무등(無等)의 이미지와 문턱이 없는 개방형 예술 장소, 누구나 쉬 수 있는 쉼의 공간을 형성한다.

무등산과 도시와 인간이 한 공간에서 서로 어울려 상생하는 풍경을 친근한 이미지로 작업해 자연과 인간과 예술이 아우르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공청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의 요구를 취합해 진행되며, ‘무등(無等)’을 주제로 한 세 작가의 개성이 담긴 예술작품은 시민과 예술, 지역을 아울러 교감하고 관계를 맺는 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연수 기자



성촌 전통문화관 버스정류장.

광주여성필 창단 20주년 기념음악회

24일 빛고을시민문화관서 피아니스트 김정원과 협연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대표 김유정)는 창단 20주년을 맞아 ‘피아니스트 김정원(사진)과 함께’를 무대에 올린다.

오는 24일 오후 7시30분 상주공연장인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제55회 정기연주회로 마련된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2019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우수 레퍼토리공연이기도 하며 창단 후 20년 동안 출연했던 많은 예술인들과 단체들이 함께 축하하는 기념음악회다.

특히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김정원을 초청해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을 협연한다.

지휘는 2019년 한국지휘자협회에서 최우수 지휘자로 선정된 박승유 지휘자가



맡으며 교향곡은 차이코프스키 제5번 마단조로 단체의 연주역량을 보여줄 예정이다.

한편 광주여성필은 지난 7월에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공헌과 지역예술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차기 공연은 오는 10월 17일 어린이, 교사, 학부모를 위한 특별음악회 ‘주사위 음악 그리고 피터와 늑대’를 무대에 올린다. /이연수 기자

10억

투자

2분 모십니다!
(주)오천경매, 010-3605-5000

▶ 10억이 20억이 될 수 있습니다
 ▶ 골프연습장 공사 중단된 토지
 ▶ 공동소유 개발 및 매매
 ▶ 경기도 연천군 임야 등 45000㎡